

는 반드시 엄격하게 정념(正念)으로 제거해 버려야 한다.

李 洪 志

2001년 7월 8일

주 : 명후이왕 당일 문장을 읽으신 평어(評語).

정념(正念)의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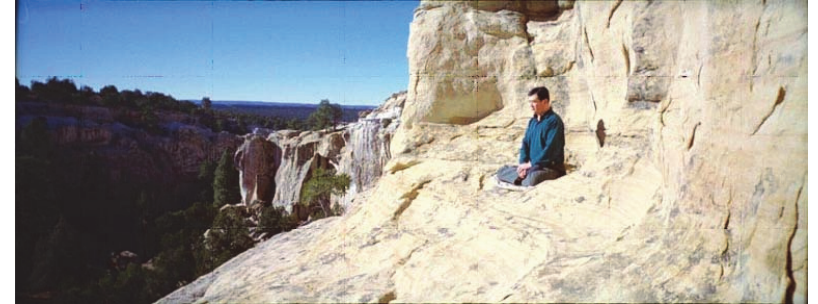
새로운 우주는 정법(正法) 중에서 비할 바 없이 아름답고 거대하기가 무궁하다. 왜냐하면, 온 대궁(大穹)은 몇천만 개의 비할 바 없이 거대한 우주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법에 의해 바로잡힌 방대한 우주체계의 절대 대부분은 이미 새로운 역사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사악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곳은 아직도 정법의 홍대(洪大)하고 거대한 변화의 위세가 닿지 못한 곳이다. 이곳이 바로 대법제자들이 정념(正念)으로 작용을 일으켜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의 상황은 또 아주 복잡하고 패괴했다.

정법 전에, 구세력은 이 수천만의 멀고도 먼 우주체계의 매 한 체계의 최저층(最低層) 부분을 우리가 존재하는 중심(中心) 우주체계의 삼계 속으로 모두 비집고 밀어 넣었다. 표현상으로는 그것들이 정법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동시에 정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법을 빌어 그것들의 사적(私的)인 목적에 도달하려 한 것이다. 천체 대궁의 더욱 높은 곳은 정법의 홍대한 위세에 의해 극히 신속하게 청리(清理), 소멸, 동화되고 있어 매분(分) 모두 무수하고 홍대한 우

주가 정법의 위세에 의해 일소되고 있으며 동시에 정법에 의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천체는 이런 무수한 우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무수하고 방대한 천체로 구성된 우주체계와 연결된 최저층차가 우리의 삼계 속으로 비집고 들어왔으며, 비집고 들어온 후 그것들의 공간은 비록 축소되었지만, 그 속의 시간과 구조는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무수한 우주와 무수한 천체로 구성된 방대한 체계 하나가 전부 정법이 끝나야만 삼계 내로 비집고 들어온 부분이 우리의 삼계 내에 조성한 간격(間隔) 하나를 비로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극히 빠른 속도로 정법 하여 신속하게 층층이 돌파하고 있지만, 천체 대궁(太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일체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서 한다 해도 역시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 폭파하여 재조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가장 빠르지만 폭파하여 재조합한다면 정법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이 무수한 외래 체계는 삼계 내에서 몇천만의 공간 간격을 형성하여 부동한 세력범위를 이룸으로써 아주 많은 사악한 생명을 은폐시켰다. 심지어 어떤 생명과 물체는 아주 많은 층으로 분리되었고, 거의 매 층의 입자가 분리되어 또 한 층으로 되었다. 삼계 내에는 본래 무수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단번에 또 몇천만 개의 이런 무수한 공간이 추가됨

으로써 정법에서 어려움이 더 커졌고 상황도 더 복잡해졌다. 때로는 대법제자가 발정념(發正念)할 때 사악한 생명이 분명히 제거되었는데, 다른 어떤 간격에는 아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어떤 사악은 대법제자가 발정념으로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한 번에 쉽게 제거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해야만 비로소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대륙의 그런 사악의 우두머리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나 무릇 어려움이 얼마나 크던지 모두 확고하게 정념(正念)으로 사악을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악을 제거하는 동시에 또한 정법 속에서 대법제자의 위대한 위덕(威德)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정념(正念)으로 악을 제거하는 중에서 확실히 아주 큰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대량의 사악한 생명을 깨끗이 제거하였고, 또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사악한 세력의 원기(元氣)를 크게 잃게 했다. 아직 정법이 닿지 못한 아주 많은 공간에서 사악을 제거하였으며 악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두려워 떨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공간이 아무리 복잡하고 사악이 아무리 창궐할지라도 역시 비할 바 없이 홍대(洪大)한 정법의 위세가 닥치기 전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정법의 위세가 닥치기만 하면 일체는 모두 순식간에 결속된다.

사부님 사진 : 조용히 세간을 바라보다



1999년 7월 20일 이후 사부님께서 뉴욕을 떠나 산중에서 조용히 세간을 바라보고 계시다.

2000년 1월 19일 발표

법정인간(法正人間) 예언

정법이 세간에서 행하기에 신불(神佛)이 크게 나타나고, 난세원연(亂世冤緣)이 모두 선해(善解)되리라. 대법(大法)에 대해 악행을 저지른 자는 무생지문(無生之門)에 떨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인심(人心)이 바로잡혀 德(더)를 중시하고 선(善)을 행하며 만물이 갱신되니 대법(大法)이 구도해 준 은덕을 공경하지 않는 중생이 없도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경축하고 함께 축하하며 함께 칭송할 것이다. 대법(大法)이 세간에서 전성(全盛)하는 때는 이때부터 시작되리라.

李 洪 志

2001년 12월 9일

내가 제자들에게 발정념을 하라고 한 것은 이른바 그러한 사악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법제자의 자비가 도리어 구세력에 이용당하여 그것들의 보호 하에서 사악한 생명이 고의로 박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법제자들이 감당하는 것은 이미 단지 자신의 업력뿐만이 아니라 사악한 생명의 박해 하에서 감당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사악한 생명은 극히 저질적이고 더러운 것들로서 정법 가운데서 그 어떠한 역할을 할 자격이 없다. 대법(大法)과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줄이기 위해, 그것들의 정법에 대한 고의적 파괴를 깨끗이 제거함으로써, 대법제자가 박해 속에서 감당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줄이는 동시에 중생을 구도하고 대법제자의 세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나는 제자들에게 발정념을 하라고 하였다.

李 洪 志

2001년 7월 16일

‘대법(大法)의 위엄’을 평함

이 제자가 ‘대법(大法)의 위엄’이란 문장에서 말한 것은 아주 좋은데, 이것이 바로 정법(正法)이 개인수련과 다른 점인 동시에 개인수련 중에서 견실(堅實)한 기초를 체현해 낸 것이다. 대법제자에게 선(善)이 없다면 수련인이 아니며, 대법제자로서 법을 실증하지 못하면 대법제자가 아니다. 사악을 폭로하는 그것이 바로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자 자신의 세계를 원만(圓滿)하게 하는 것이다.

李 洪 志

2001년 7월 17일

주 : 명후이왕 당일 문장에 대한 평어(評語).

가을바람 서늘하구나(秋風涼)

사악한 자들아 그만 날뛰거라
천지가 다시 밝아오면 끓는 물에 떨어지리라
폭력으로는 인심을 움직이기 어렵나니
광풍은 가을을 더욱 서늘케 하는구나

邪惡之徒慢猖狂，
天地復明下沸湯；
拳腳難使人心動，
狂風引來秋更涼。

李 洪 志

2001년 10월 25일

러시아 제2기 대법(大法) 법회에 보냄

러시아 제2기 대법(大法) 법회에게

정법시기(正法時期)에 수련생들은 모두 대단히 잘 했다. 특히 러시아 수련생들은 러시아 국민들이 사악한 중국 정치집단의 선전에 엄중한 영향을 받은 상황 하에서, 수련생들이 각종 압력을 무릅쓰고 불학회(佛學會)를 설립했고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가운데서 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는 모두 대단한 것이다. 희망하건대 이번 법회를 통해 진상을 똑바로 알리고 사악을 폭로하며 중생을 구도하는 일을 더욱 잘 전개하기 바란다. 자주 국외 다른 지역의 수련생들과 교류하고, 서로 고무격려하며, 공동 정진(共同精進)해야 한다. 사부는 당신들의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

李 洪 志

2001년 9월 29일

대법(大法)은 원용(圓容)하다

인류사회 역시 대법(大法)이 개창한 한 층차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층차에서도 중생에 대한 법의 생존표준과 이 층차에서 사람이 되는 이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삼계(三界)와 우주의 일체는 반대되기 때문에 법리(法理) 또한 이 한 층의 생명에 속인의 생존에 적합한 반대되는 이치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군대로 천하를 정복하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며, 살생하여 음식을 취하고, 강자가 영웅이 되는 등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전쟁 등에 대한 개념이 모두 속인의 이치와 사람의 인식을 만들었다. 이런 것은 우주 고층의 바른 법리를 놓고 말하면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수련인은 속인의 일체 마음, 일체 이치를 버려야만 비로소 고층차로 수련할 수 있고 비로소 우주와 반대되는 삼계를 뛰쳐나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속인 역시 이 일체 인식을 모두 거꾸로 하여 우주 고층의 바른 법리로 요구하고 인류 혹은 삼계의 일체를 가늠한다면, 그 삼계는 바로 바른 법리로 되어버리고 인류사회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사람의 상태도 없어지고 모두 신(神)의 세계이며, 동시에 사람에게는 수수께끼가 없고 또한 수련의 기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고층 생명의 쓰레기는 아래로 떨어지게 마련이고 인류사회는 바로 우주의 쓰레기장이기 때문이다. 이 속에 있는 생명이 생존하게 하려면 반드시 이 한 층의 생존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대법(大法)이 이곳의 중생에게 개창한 생존 요구와 조건이다.

고층 천체(天體) 중에서 대각자(大覺者)의 세계와 생명은 바른 법리 속에서 생성된 것이거나 바른 법리 속에서 수련하여 원만한 것이다. 그의 일체는 모두 바른 법리에 부합된다. 각자(覺者) 또한 이 세계의 왕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인식하는 통치방식이 아니라 眞(眞)·善(善)·忍(忍)의 바른 법리로 그 세계의 일체중생을 선화(善化)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군대로 천하를 정복하고, 강자가 영웅이란 것은 우주 대법이 인류에게 준 이 한 층의 이치이다. 왜냐하면, 삼계는 반대로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이치는 우주의 바른 법리와 비교하면 역시 반대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대로 천하를 정복하고, 강자가 영웅이란 이런 강박적인 폭력행위 또한 사람의 바른 이치로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인류의 일체를 신(神)이 조종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전쟁·강자(強者)·승패(勝敗)는 신(神)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강자·영웅 역시 신(神)에게서 ‘영웅’·‘강자’를 부여받았

하는 일체를 제외하고 모두 그 곳의 대법(大法)과 대법 제자에 대한 박해를 폭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면에서 볼 때, 중국대륙의 대법(大法) 상황은 보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박해 받아 사망한 것과 박해 중에서 사용한 사악한 수단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보도해야 한다. 이는 유럽 대법뉴스를 위주로 하는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장의 수량에서 유럽이 위주이고 명혜망이 보도한 중국대륙 대법제자의 중요한 상황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유럽 원명망의 특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대법(大法)이 박해를 받는 중요한 뉴스도 있어 그 지역의 시청자와 독자들은 모두 중시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대륙에서 매일 대법제자들이 박해 받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이상은 나의 생각이며, 만약 당신들이 자신의 생각과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는다. 오로지 사이트를 더욱 잘 운영하여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李 洪 志

2001년 9월 25일

유럽 원명망(圓明網)에 보냄

유럽 원명망에게

여기에 참여한 모든 대법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명망(圓明網)을 잘 운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나는 당신들과 몇 마디 하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우선 대법(大法) 인터넷 사이트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이는 진상을 똑바로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고, 사악의 박해를 폭로하기 위해 하는 것이며, 세인을 구도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동시에 민중 속에서 매스컴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대법(大法)의 진상을 알리고 세인을 구도하며 사악을 폭로하는 데에서 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향 또한 거대하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보도내용에서 자신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하며 유럽의 상황을 많이 보도해야 한다. 동시에 매일 밍후이왕(明慧網)의 보도와 중요한 몇몇 뉴스를 전제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국내 대법제자들의 실제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법제자의 주체(主體)는 중국에 있으며 전 세계 기타 지역의 대법제자가 하는 일체는 자신을 원만(圓滿)하게

으며, 사람의 영예를 향유(享有)하는 것 역시 신(神)이 사람에게 주는 보답이다. 오로지 정법(正法)을 수련하는 수련자만이 비로소 이러한 이치에서 뛰쳐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대법(大法) 수련자로서 속인사회에서 수련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일체를 대하겠는가? 만약 속인사회 중에서 대법(大法)을 수련하며 또한 사람 수도 아주 많다면 반드시 최대한도로 속인사회에 부합하게 수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속인사회를 개변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당신들에게 말한 법리 중에서 최대한도로 속인사회 상태에 부합하게 수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 실제적인 일부 문제에 부딪히면 여전히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주 많다. 예를 들면 군에 입대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군에 입대하면 전투를 하게 되고, 전투를 하자면 훈련을 해야 하며, 연마하는 것은 모두 살인하는 능력이고, 게다가 실전(實戰)에서는 살인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는 바른 법리 속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지만 속인의 이치 중에서는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의 이치는 곧바로 바른 법리일 것이다. 고통이 없다면 사람이 세상에서 짓는 업력 역시 제거할 방법이 없으며, 사람이 살생하지 않으면 사람 역시 먹을 고기가 없다.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하므로 사람은 음식을 얻는

중에 업(業)을 빚을 수 있는데 고기를 먹는 것은 단지 업을 짓는 한 방법일 따름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업을 짓는 것이며 단지 많고 적을 따름이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업을 갚는 요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질병, 자연재해와 전쟁이다. 사람이 전쟁 중에 고통스럽게 사망하면 그 생명은 업력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할 수 있는데 내세에 환생할 때 업력이 없고 행복한 생활이 있게 된다. 속인의 선량함은 생존을 위해 음식을 취하는 업을 짓지 않는 데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악(惡)에 대해 따지지 않으며, 마음속에 증오를 품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고의로 보복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며, 무고한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고의로 생명을 손상하지 않는 데 있다. 단지 생존을 위해 음식을 취한다면 업이 있을 뿐 과실은 없다. 전쟁은 신(神)이 배치한 것으로 만약 이런 것이 아니고 무고하게 살생한다면 우주의 바른 법리와 사람의 이치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신(神)은 사람을 이용해 함부로 살해한 자를 징벌하고 다스릴 것이다. 만약 사람이 큰 생명을 살해했다면 그 죄업은 아주 큰 것으로 특히 살인이 그러하다. 이러한 업을 지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수련자를 놓고 말하면, 간고(艱苦)한 수련 속에서 고통스럽게 단련하는 것 역시 모두 예전에 지은 업력을 갚는

대법제자가 걷는 길은 바로 한 부의 휘황한 역사로서, 이 한 부의 역사는 반드시 자신이 증오(證悟)하여 개창한 것이어야 한다.

李 洪 志

2001년 7월 9일 완성

2001년 9월 23일 발표

인 생명들은 확실히 수련자 개인이 원만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시금석 역할을 했다. 모래라면 반드시 도태된다. 그러나 오늘날 다른 점은 천체(天體) 중에서 정법(正法)을 하고 있고 대궁(大穹)은 재조합되고 있으므로, 대법(大法)에 대한 이른바 모든 고통은 모두 정법을 교란하는 것이며 게다가 박해에 참여한 것은 또 모두 대법(大法)에 대한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구세력이 과거 역사상에서는 개인수련에 대해 한 일체가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었으나, 만약 이러한 수법을 정법 중에 사용한다면, 비단 대법(大法)이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법을 놓고 말한다면 이는 심각한 교란과 파괴이다. 현재 참여한 것이 바른 생명이든지 부(負)적인 생명이든지 구세력에 대해 말한다면 철저한 제거이다. 정법(正法) 중에서 그 속에 참여한 사악한 생명은 그것의 층차가 얼마나 높든지 모조리 도태시키고 있다. 이것은 정법에 대해 말한다면 일반 수련과 뚜렷이 다르다. 지금 사악의 박해에 대하여, 대법제자들이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가운데서 어떤 수련생은 역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 마난(魔難)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는 모두 자신이 깨달아야 한다. 때 차례 제고는 바로 자신이 증오(證悟)한 과위가 승화하는 것이다.

것이다. 정신적으로 지은 죄업은 수련의 간고함 속에서 갚을 수 있으나, 살해된 그러한 생명은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물질적 손실을 고통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므로, 수련자가 자신을 원만하게 하는 일체 과정에서 자신이 수련한 성과로 구도하거나, 그에게 복으로 보답해야 한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살해된 생명이 얻는 보상은 자신이 인간 속에서 얻은 것에 비하면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곧 악연(惡緣)을 선해(善解)한 것이다. 반면에 만약 수련자가 정과(正果)를 얻지 못하고 잘 수련하지 못하면 그 살해한 일체 생명을 곧 장래의 악보(惡報) 속에서 몸으로 갚아야 한다. 전제는 수련자가 반드시 원만할 수 있어야 한다. 원만할 수 없는 사람이 한편으로 살생하면서 한편으로 그것을 초도(超度)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곧 죄에다 죄를 가하는 것이다. 현재 대법제자도 군에 입대한 사람이 있고 군인이 되는 것 역시 사람의 일이다. 특히 어떤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성년남자는 반드시 병역에 한 번은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당신들은 속인 중에서 수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 만약 특수한 원인이 없다면 역시 최대한도로 속인사회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 군인이 된다고 하여 반드시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군인이 훈련 중에 적을 무찌르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선(善)

이 없는 것이지만 대법제자는 그것을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사악으로 간주해도 좋다. 만약 전쟁이 정말로 발생한다면 대법제자가 반드시 제1선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사부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로 전선(前線)으로 나갔다면 아마 밀라레빠의 사부처럼 그것을 흑업(黑業)으로 행하게 하고 선과(善果)를 맺는 인연관계로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법리(法理)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무소불능(無所不能)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모두 원용불파(圓容不破)한 것이며 나아가 수련자는 필경 사부가 지켜보면서 보호하고 있다. 한 수련자가 부딪히는 일체는 모두 당신들의 수련, 원만에 관련된 것으로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속인사회 중에서 일을 잘하는 자체는 대법제자가 속인 중에서 선량함을 수련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大法)이 속인사회에 창립한 법리를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정된 직업 역시 수련자로 하여금 의식주 문제, 생존 문제로 인해 수련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심하고 홍법과 진상을 똑바로 알리고 세인(世人)을 구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사회의 각가지 직업 속에서 모두 수련할 수 있으며 역시 모두 인연이 있는 사람이 법을 얻기를 기다리고

것이 나타났으며 박해에 대하여 대법제자들은 반드시 나와서 법을 실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수련생은 다른 사람이 걸어 나와 법을 실증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따라 나섰고,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자 자신도 나오지 않았으며, 대법제자가 구타당할 때, 이른바 ‘전향’할 때, 다른 사람이 사악한 압력에 굴복하여 그 무슨 이른바 수련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쓴 것을 보고 법에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따라서 쫓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 오점(污點)을 씻어버리지 못한다면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가? 현재 이번 사악의 박해는 구세력이 억지로 대법(大法)과 제자들에게 강요한 것이다. 박해에 반대하여 한 이 일체는, 곧바로 대법제자가 대법(大法)과 자신에 대해 책임지는 가장 위대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패괴한 역사 속에서 수련인에 대한 사악한 세력의 박해 또한 처음이 아니다. 이것은 그 해 예수가 겪은 것을 다시 한 번 재현한 것이 아닌가? 석가모니부처 역시 마찬가지로 겪지 않았던가? 만일 정말로 참조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면에서 예전의 각자들이 겪은 것과 오늘날의 사악은 똑같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비록 실제적인 표현은 다소 다르나 목적은 모두 정법수련자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데 있다. 과거 역사상에서 일반적으로 정상적 수련에서 그러한 부(負)적

동요했으며, 전국에 억 만인이 대법(大法)을 수련하는 것을 보고 틀림없이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배우기 시작했고, 사악이 대법(大法)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과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서 대법(大法)을 모함하는 것을 보았을 때 동요하기 시작했으며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수련이란 곧 어려운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든지, 사악이 미친 듯이 박해하든지, 생사에 관계되든지 막론하고, 당신이 여전히 수련의 이 한 갈래 길을 확고하게 걸어가면서 인류사회 중의 어떠한 일도 수련의 길에서 행보를 교란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현재 대법제자는 바로 정법시기에 처해 있다. 구세력의 표현은 대법제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엄격한 고험(考驗)을 조성하였다.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대법(大法)에 대한 것과 매 대법제자가 자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실천이고, 사악을 타파하는 속에서 걸어 나와 대법(大法)을 실증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생(生)과 사(死)의 견증(見證)으로 되었고, 정법제자들이 원만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검증으로 되었으며, 또한 사람과 신의 구별로 되었다. 대법제자를 놓고 말하면 법을 수호하는 것은 도리상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역사의 오늘 정말로 사악이 대법(大法)을 박해하는

있다.

李 洪 志

2001년 7월 30일

정법시기 대법제자

대법제자가 대법(大法)을 수호하는 작용을 하지 못하면 원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과거와 장래의 수련과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제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부가 당신들을 위해 거의 역사상의 일체를 감당하기에 정법기간의 제자는 반드시 정법이 결속된 후에야 비로소 떠나갈 수 있다. 때문에 수련하는 과정 중에서 당신들이 개인적 원만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으로 되었다. 만약 당신들을 위해 역사상의 일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전혀 수련할 방법이 없고, 만약 우주 중생을 위해 일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역사가 지나감에 따라 해체될 것이며, 만약 세인들을 위해 일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오늘날 세상에 있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사전(史前) 역사과정 중에서도 줄곧 정법시기 제자의 위대함에 따라 당신들의 일체를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배치 속에서 당신들이 일반적인 원만의 표준에 도달했을 때 세간(世間)에서 아직도 속인의 각종 사상과 업력이 있을 수 있는데, 목적은 정법 일을 하는 한편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중에서 당신 자신의 세계의 원만을 위해 제도할 수 있는 생명

길(路)

법을 배우고 수련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다. 하지만 흔히 많은 수련생이 늘 다른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한다. 이것은 속인 중에서 양성된 좋지 못한 행위이다. 수련하는 사람에게는 본보기가 없으며 매 사람이 걷는 길은 모두 다르다. 왜냐하면 매 사람의 기초가 같지 않고 각종 집착심의 크기가 같지 않으며 생명의 특징이 같지 않고 속인 중에서 하는 일이 같지 않으며 가정환경이 같지 않은 등등의 요소가 매 사람의 수련의 길이 같지 않고, 집착심을 없애는 상태가 같지 않으며, 관(關)을 넘기는 크고 작음이 같지 않음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표현상에서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길을 찾기가 어려우며 무임승차하기란 더욱 불가능하다. 만약 정말로 잘 닦여진 길과 편승할 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결코 수련이 아니다.

대법(大法)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관망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신도 그렇게 하면서 법으로 옳고 그름을 가늠하지 않았다. 대법(大法)을 수련하여 병이 나은 것을 보면 자신도 신명이 났고, 어떤 사람이 연마(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도

역시 두세 마디를 말하다(也三言兩語)

‘좋은 사람’, 이 글은 말은 많지 않지만 하나의 이치를 설명하였다. 우주진리(宇宙真理)에 대하여 견고하여 파괴할 수 없는 정념(正念)은 선량한 대법제자의 반석같이 확고한 금강지체(金剛之體)를 구성했으며, 일체 사악으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케 했고, 방사(放射)해 낸 진리의 빛은 일체 생명의 바르지 못한 사상 요소를 해체시켰다. 얼마만큼 강한 정념(正念)이 있으면 그만큼 큰 위력이 있다. 대법제자들은 정말로 속인 중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李 洪 志

2001년 9월 8일

주 : 명후이왕 당일 문장 ‘삼언양어 : 좋은 사람’에 대한 평어(評語)이다.

들을 수집하고, 당신들 자신의 세계를 원만하게 하는 동시에 또한 당신들의 최후의 업력을 제거하고, 점차 사람의 사상을 제거하며, 진정하게 사람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데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면 당신들은 아직도 구세력의 박해를 타파하는 과정 중에서 위대한 위덕을 세워야 하고 당신들의 가장 높은 위치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일반 경지에서 원만하는 문제가 아니며 또한 통상적인 원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기에 는 당신들이 대법(大法)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당신들은 자신의 전면적인 원만과 회귀(回歸)를 위해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한 기간 동안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잘하지 못하면 원만의 단계 또한 수련과정에 불과한 것이며 근본적으로 정법제자의 진정한 최후 원만으로 될 수 없다. 대법제자가 사악의 박해 중에서 잘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느슨히 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이룬 공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소수 수련생은 줄곧 사악을 타파하고 진상을 알리는 일을 한 가지 내키지 않는 일로 여기며 마치 사부를 위해 무엇을 하고 마치 대법(大法)을 위해 별도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원만의 표준에 도달했다는 나의 말을 듣기만 하면 마치 무거

은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자신을 느슨히 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사부가 당신들에게 이처럼 신성한 일을 말한 것을 더욱 정진하는 동력으로 삼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아직도 정법제자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현재의 마난(魔難) 속에서 걸어 나올 수 없으며 인간 세상의 안일(安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끌려 사오(邪悟)할 것이다. 사부는 떨어져 내려간 그러한 사람들을 줄곧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수가 이런 마음에 이끌려 망가진 것이다. 당신들은 아는가? 정법제자가 정법시기를 걸어 넘어가지 못한다면 다음 한 차례의 수련기회는 없다. 왜냐하면 역사상 이미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인수련 중에서 거의 아무런 고생도 겪지 않았고, 당신들이 생생세세에 지은 하늘처럼 큰 죄업(罪業) 또한 당신들 자신이 감당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가장 빠른 방식으로 당신들의 층차를 제고시켜 주고, 당신들 과거의 일체 좋은 것을 보존하고 있다. 게다가 매 층차 중에서 또 당신들에게 더욱 좋은 것을 보충해 주고 수련 중에서 줄곧 당신들에게 매 경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체를 줌으로써 원만한 후에 당신들로 하여금 당신들의 최고 경지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것은 당신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며 지금 더욱 많은 것은

당신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 대법제자의 위대함은 당신들이 사부가 정법하는 시기와 함께 있으며 대법(大法)을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한 것이 이미 대법제자로서 자격이 없을 때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천지개벽에도 없었던 자비와 불은호탕(佛恩浩蕩) 하에서도 잘하지 못한다면 어찌 또 다음 한 차례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가? 수련과 정법은 엄숙한 것이다. 이 한 기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사실 바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 한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지만 도리어 부동한 층차의 위대한 각자(覺者), 불(佛)·도(道)·신(神)과 부동한 층차의 주(主)의 위덕을 단련해 낼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을 느슨히 하는 한 수련자로 하여금 이미 굉장히 높은 층차에서 하루아침에 망가지게 할 수 있다. 제자들이여, 정진하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체는 모두 당신들이 대법(大法)을 실증하는 과정 중에서 생긴다. 당신들의 서약(誓約)은 당신들 장래의 증거가 될 것이다.

李 洪 志

2001년 8월 15일